

STAR CRAFT III



BILZARD
ENTERTAINMENT

"깨어난 꿈"

스톤은 문이 열리기도 전에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았다.

폭발음과 총성, 유령 하나가 캐롤라이나 데이비스 장군의 숙소에 침투했다는 인류의 수호자 부대원들의 다급한 보고, 부대원들이 전투에서 쓰러진 후 통신 채널에 흐르는 귀가 멍멍한 침묵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 자치령 요원의 표적은 하나일 수밖에 없었고, 스톤은 장군의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데이비스 장군과 인류의 수호자는 저그와 프로토스 같은 외계 종족과 맞서 싸우는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이보다 목숨을 걸고 싸울 만한 일이 또 있을까? 스톤이 평생 단련해 온 것은 이런 순간을 위해서였다. 자신을 바쳐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킬 기회를 위해서. 그는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리라. 저버려서는 안 된다.

극소수의 유령만이 인류의 수호자 주둔지를 돌파할 수 있다. 데이비스의 외부 집무실 문이 열리고, 스톤은 강력한 사이오닉 에너지를 감지한다. 익숙한 기운에 그는 실망과 공포에 사로잡힌다.

요원 X41822N. 노뱌버 테라, 일명 '노바'.

은폐한 채로 스톤은 무기를 들고 큰 방에 조심스레 들어오는 노바를 지켜본다.
그녀는 잠시 서서 스톤의 바로 오른쪽에 있는 아크튜러스 멧스크 황제의 위압적인
동상을 감상한다. 그리고 그 후에 방을 스캔한다. 노바는 누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스톤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나마 기습의 효과를 노리려면 먼저 공격을 해야 한다. 노바를 쓰러뜨리려면
최대한 우위를 점해야 하니까. 하지만 스톤은 노바에게 목숨을 맡긴 적이 있었다.
자신 같은 사람조차도 친구라고 부를 만한 가장 가까운 존재로 여긴 적이 있었다.
하고 싶은 질문들이 있었다.

화도 나 있었다.

"다시 만날 줄 알았다." 스톤이 말한다.

노바는 스톤의 위치를 찾아낸다. 스톤은 보호막을 내려 모습을 드러내고, 들고
있던 특공대원 소총도 내린다. 노바가 눈을 가늘게 뜬다.

"스톤. 스톤... 어떻게 된 거야?" 그녀가 묻는다.

"당신은 날 버리고는 자치령 놈들과 손잡고 옛 동지들을 죽였어. 다음은 내
차례겠지."

"놈들이 기억을 조작했군. 이걸 당신이 아니야."

노바의 정신이 스톤의 정신에 침투하여 생각을 읽으려 한다.

"운명은 각자가 선택하는 거야... 이게 당신이 선택한 운명이고." 스톤은

강하지만 노바는 더 강하다. 그녀의 텔레파시를 오랫동안 차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스톤이 노바에게 발포한다.

노바는 방 저편에 있는 또 하나의 대형 동상 뒤에 몸을 숨긴다. 멩스크 동상의 양옆을 지키고 있는 두 마리 코랄의 늑대 중 한 마리 뒤에. 멩스크 가문의 휘장이자 정권의 상징 뒤에.

스톤은 이것이 목숨이 걸린 전투임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중한 목숨은 그가 지키리라 맹세한 이의 목숨뿐이다. 노바가 자신을 제치고 데이비스 장군에게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스톤은 전장에서 일반적인 인간을 상대하는 데 익숙했다. 설령 제대로 훈련받고 무장을 갖춘 인간들이라도 유령의 사이오닉 능력에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특히 유령이 역대 최고의 최첨단 장비인 환경 차폐복을 착용하고 있다면 더더욱. 스톤은 피부에 밀착되는 차폐복으로 사이오닉 능력을 집중시켜 근력과 민첩성을 높임으로써 사실상 무적 상태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노바도 똑같은 차폐복을 입고 있으며, 스톤의 사이오닉 등급이 7 인 것에 비해 노바는 10 이었다. 능력과 기술이 엇비슷한 유령 둘이 싸우는 일은 드물다. 그것은 전면 공격보다는 체스 경기와 비슷하다. 약간의 운으로 판도가 뒤집히기도 하는 전략과 인내, 확률의 게임인 것이다. 스톤은 훈련 중 노바와 대련한 적이 있었다. 노바와 같은 적에 맞서 싸운 적도 있었고.

스톤에게는 운이 아주 많이 필요할 것이었다.

차폐복에 장착된 실험 단계의 위상 반응로를 작동시켜 노바 바로 뒤의 위치로 이동하지만, 이미 그녀는 그곳에 없다. 스톤이 무기를 발사하며 다시 나타나는 순간 그녀는 사라졌다. 은폐 상태로 빠르게 움직인 것일까, 아니면 그녀도 실험 단계의 순간이동 기술을 확보한 것일까? 스톤은 다시 한번 의식의 가장자리로 침투하는 노바의 존재를 느낀다. 아무래도 힘뿐만 아니라 의지력의 대결이 될 듯하다.

"당신은 우리 중 최고였어, 노바. 왜 우리를 배신한 거지?" 그가 외친다.

"그건 애초에 당신 생각이었어."

"또 거짓말!" 그 순간 그는 결눈으로 움직임을 포착하고 빙글 돌아 총을 쏜다.

빛나갔다. 하지만 노바의 공격은 빛나가지 않았다. 뒤에서 사격을 받은 그는 거의 균형을 잃을 뻔한다. 스톤이 돌아서면 노바는 이미 사라지고 없다.

싸움은 지지부진 계속된다. 스톤이 총을 발사하지만, 노바에게 주는 피해보다는 집무실에 입히는 손상이 더 크다. 여기저기로 점멸하며 방어의 허점을 찾아보지만, 노바는 언제나 한발 앞서 주위 환경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며 사격을 피하고 그에게 총구를 겨눈다.

노바가 그를 지치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녀는 전력을 다하지 않는 듯하다. 노바의 위력을 스톤은 알고 있다. 진심으로 그를 죽이고자 했다면, 이미 죽어 있을 터였다. 노바는 스톤이 죽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는 이유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건 현실이 아니야. 스톤은 생각한다. 이건 기억이야. 아니면 꿈이겠지.

스톤은 문득 방향 감각을 잃고, 노바의 위치를 놓친다. 잠시 후 그는 또 충격을 느끼고 그대로 의식을 잃는다.

#

스톤은 서서히 정신을 차렸지만, 일어나는 순간 기억이 다시 밀려들며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미지와 소용돌이치는 감정으로 정신을 후려쳤다.

첫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은 이것이었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두 번째, 세 번째 생각이 밀려들었다. 여기가 대체 어디지? 왜 난 죽지 않았지?

눈을 뜬 스톤은 방을 비추는 어스름한 빛에도 움찔했다. 병동에는 오래 있어 보았던지라 강한 소독제 냄새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헬멧은 벗겨져 있었고 차폐복도 벗겨진 상태라 벌거벗은 기분, 무방비 상태가 된 기분이 들었다.

그때 고통이 파도처럼 그를 휩쓸었다. 지끈거리는 두통이 눈 뒤를 압박했다. 머리로 손을 뺨으려 했지만 팔은 옆구리에 스트랩으로 묶여 있었다. 다리도 속박되어 있었다. 오른쪽 어깨가 타는 듯한 것이, 회전근개가 파열된 모양이었다. 피부가 통째로 하나의 멍이기라도 한 듯 온몸이 욱신했다.

하지만 신체적인 불편은 참담한 패배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데이비스 장군을 보호하기는커녕 적에게 사로잡히고 말다니. 장군도 포로가 되었을까?

하지만 머릿속 한 구석에 남아 있는 의문 하나가, 다른 모든 것을 물들이고 있었다. 왜 노바는 스톤을 봐주었는가?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스쳤다. 샤프스버그의 기지에서 노바의 탈출을 돕던 기억이. 고속도로에서 시체매를 타고 펼친 숨 가쁜 추격전이.

하지만 그 임무는 일어난 적이 없었다. 노바는 인류의 수호자의 배신자였으며, 적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그를 포로로 잡고 있는 것은 자치령일 터였다. 이곳에서 빠져나가야 했지만, 하지만 '이곳'이 어디인지 아는 것이 우선이었다.

스톤은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살이 살폈다. 오른쪽으로는 빈 병상이 보였다. 이불이 구겨진 것을 보니 얼마 전까지 누군가 누워 있었으리라. 왼쪽으로는 진단 터미널이 있었다. 함선이군. 얇은 매트리스를 통해 기계의 부드러운 진동을 느끼며 스톤이 내린 결론이었다. 또 하나의 기억이 거품처럼 떠올랐다. '황자와 조약돌' 이야기가.

스톤은 단편적인 조각만을 떠올릴 수 있었다. 그의 인생 전체가 그랬지만. 궁전에서의 삶이 지루해서 혼자서 도시를 탐험하러 빠져나간 어린 황자의 이야기였다. 어린 황자는 얼마 되지 않아 도시의 젊은이들과 함께 징집되어 군에 입대하게 된다. 당시 진행 중이었던 전쟁의 최전선으로, 즉 사지로 수송되어 가는 동안, 황자는 자신이 황제의 아들이라 털어놓고 황궁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황제가 아들의 실종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기에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

그때 한 지혜로운 장군이 청년의 주장을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기 전날, 장군은 갑옷을 갖춰 입은 자칭 황자를 불러들여 차를 마시자고 권한다. 그녀는 청년에게 자기 건너편에 놓인 폭신한 방석 위에 앉으라고

했다. 그 후 장군은 황제와 황자의 삶에 대해 질문을 던지지만 청년은 잘 대답하지 못한다. 앉은 자리에서 오만상을 짓고 꿈지럭거리느라 정신이 없었고, 차에는 입도 대지 않았다.

"왜 그러십니까?" 장군이 물었다.

"이건 제국에서 제일 울퉁불퉁한 방석이구나!" 청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방석을 옆으로 던져 버렸다. 그 아래에는 조약돌이 하나 있었다. 장군이 손뼉을 쳤다. "말씀하신 바가 맞군요." 그녀가 말했다. "오직 황자만이 갑옷을 완전히 갖춰 입고도 방석 아래에 조약돌이 있는 것을 느낄 만큼 예민할 테니까요." 그리하여 장군은 청년의 목숨을 구하고, 자신의 목숨도 건졌다는 이야기다.

희한했다. 동화는 유령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에 없었고, 스톤은 기억이 있을 때부터는 쪽 코랄에 있는 사관학교에서 자라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을까? 그리고 왜 그것을 떠올리면 고통스러운 상실감이 느껴질까?

스톤은 황자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기억은 꼭 이야기 속 조약돌 같았다. 오랜 세월이 걸친 프로그래밍과 재프로그래밍, 기억 이식의 층층 아래에 있는 무엇이

느껴졌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마치 진실이 그의 정신 뒤편을
끈질기게 간지르는 듯이.

스톤은 텔레파시로 노바의 존재를 감지하려 해 보았다. 노바가 이 함선에
있다면 데이비스 장군도 있을 가능성이 높았기에.

"노바!" 스톤은 그녀의 존재에 정신을 집중했다. 하지만 아직도 노바와의 전투
때문에 녹초가 되어 힘을 끌어모을 수가 없어, 실은 눈을 겨우 뜨고 있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때 웬 목소리가 들려와 그는 다시 퍼뜩 정신이 들었다.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톤 요원."

낮고 따뜻하지만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스톤은 초점을 다잡으려고 눈에
힘을 주고, 주위를 재빨리 둘러보며 목소리의 근원을 찾았다. 그때 누가 스톤의
오른쪽에서 시야로 걸어 들어왔다. 머리가 벗겨지고 어깨가 넓으며 인공 팔을 쓰는
흑인 남자였다. 그는 스톤이 연구실의 표본이라도 되듯 관찰했다.

"당신은 누구지? 여긴 어디고?"

"저는 당신 편입니다." 남자가 말했다.

"난 당신 몰라."

"전 라이글이라 합니다. 노바와 함께 일하죠. 친구의 친구라 하면 되겠군요.
노바가 당신을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라이글의 표정은 신중하고 건조했지만, 눈빛만은 다정해 보였다. 목소리와
억양은 편안했고, 스톤은 긴장을 풀었다.

스톤은 구속구를 당겼다. "이게 잘 보살피는 건가?" 그가 물었다.

"당신 스스로를 위한 안전 조치입니다." 라이글은 머리를 기울였다. "물론
선원들을 위한 안전 조치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여긴 함선이 맞군." 스톤이 말했다.

라이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이러지 마. 뭐든 말해 보라고.* 스톤이
생각했다.

"나는 포로인가?" 스톤이 다시 구속구를 당겼다. 차폐복이 있었다면 이런
물건은 휴지처럼 찢어졌을 텐데. 구속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이었다.

라이글은 의료 스캐너를 들고 스톤의 병상 머리맡을 천천히 돌았다. 스톤은
소리 없이 스트랩을 당기면서 눈으로 그를 쫓았다.

"자신의 마음에 갇혀 있다는 의미에서라면, 네, 포로라고 할 수 있죠." 라이클이 말했다. "당신의 기억은 변조되었습니다."

"그거야 새삼스럽지도 않은 일이지."

"당신은 인류의 수호자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당신과 노바, 델타, 피어스는 잠복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노바가 놈들의 시설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다가 사로잡히고 말았지요. 그 후에 캐롤라이나 데이비스가 당신을 이용한 겁니다. 아마 당신이 있으면 노바의 허를 찌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요."

"델타와 피어스." 스톤이 중얼거렸다. "그 둘은 괜찮나?"

"살아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제일이지." 스톤이 말했다.

또 하나의 기억이 의식으로 스멀스멀 기어들었다. 수호자의 시설에서 싸우며 빠져나오던 기억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스톤은 생각했다.

스톤은 고개를 저었다. 어느 기억이 진짜인지, 누가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스톤은 무기였고, 지금까지 너무 많은 주인을 거쳐 와서 이제 제대로 기억도 나지 않았다. 그저 명령에 복종하던 때가 훨씬

단순했다. 그때는 자신이 했던 일, 자기 행동의 결과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지 않아도 되었으니까.

스톤은 노바를 죽이려고 했다. 노바가 정말 스톤의 친구였다면, 스톤 잘못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랑스럽지는 않은 일이다. 노바는 적어도 죽이거나 심하게 해치지 않고도 스톤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으니까. 스톤은 그런 배려를 하지 않았다.

"내 기억을 지울 수 있나?" 스톤이 물었다.

"안 됩니다. 적어도 아직은 말이지요."

그럼 그렇지. 스톤은 생각했다. 기억을 간단히 지워 버릴 수 있으면서도 거부한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 스톤은 남자가 하는 말을 전혀 믿을 수가 없었다.

"노바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이야기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당신은 총알을 맞고 사이오닉 공격을 받은 데다, 물리적으로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미 고생은 충분히 한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계속 말해 보지. 기억나게 말이야." 스톤이 말했다. 팔의 구속구는 한결 느슨해져 있었다.

"제 말은, 당신은 약한 상태고 손상된 기억을 정리하는 중이라는 겁니다. 좀 쉬십시오. 노바가 임무 수행 후에 이야기를 나누러 올 겁니다."

임무라고? 데이비스 장군의 집무실을 습격하고 바로 수행할 만한 임무가 무엇일까?

장군을 자치령으로 이송하는 임무군. 스톤은 생각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이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다. 자신도 자치령에 넘기기 전에 방심하게 하려는 수작이다.

스톤은 한숨을 쉬었다. "맞아. 난... 지쳤어."

라이글이 몸을 바짝 기울이고 스톤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스톤은 거짓말에 능했다. 감정과 생각을 잘 숨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라이글의 얼굴에 어린 것은 의혹이 아니라, 걱정이었다. 진심으로 스톤의 건강을 염려하는 듯이.

어쩌면 그 또한 그저 연기에 능한 것인지도 몰랐다. 라이글은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아온 것이 분명했다. 자치령에 충성하는 이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라이글이 살아남았다면, 분명 똑똑하다는 뜻이었다. 살아남았다, 똑똑하다. 적에게서 경계해야 할 두 가지 자질이였다.

"필요하다면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이클이 제안했다.

스톤은 눈을 감았다. "필요 없어." 스톤은 느리고 일정하게 호흡하는 데 집중했다. 병동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린 후, 그는 팔을 묶은 스트랩을 다시 당기기 시작했다.

땀을 흘리며 한 시간 남짓 애를 쓴 끝에 결국 스트랩이 왼팔을, 이어 오른팔을 빼낼 수 있을 만큼 느슨해졌다. 스톤은 일어나 앉아 다리를 묶은 띠를 잡고, 눈을 감고 턱을 악문 채 온 힘을 다해 당겼다. 금속에 금이 가면서 구속구의 한쪽 끝이 부러졌다.

"죌!" 턱을 악물고 계속 당긴다.

마침내 스톤은 풀려났다.

그는 숨을 골랐다. 함선에 탑승 중인 인원은 모두 임무를 수행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었다. 지금이야말로 데이비스 장군을 찾고 왕복선을 훑쳐 탈출할 절호의 기회였다. 또는 함선을 장악하여 선원들을 몽땅 수호자의 기지로 데려간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터였다. 아직 바도나에서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스톤은 다리를 휘저어 침상에서 내리고, 뛰어 내렸다. 방이 빙글 돌면서 시야에 검은 반점들이 생겨났다. 병상 가장자리로 손을 뻗었지만,

손은 빗나갔다.

다리가 휘청거리는가 싶더니 바닥이 순식간에 얼굴로 다가왔다. 바닥에 털썩 쓰러지는 순간에는 이미 의식을 잃은 후였다.

#

스톤은 화들짝 깨어났다. 땀투성이였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며 온몸으로 아드레날린을 보냈다.

오른쪽에 있는 넓은 뷰포트 밖에서 흘러가는 별들을 빼면 방은 캄캄했다.

병동이 아니었다. 스톤은 아까보다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몸은 묶여 있지 않았다.

코가 심하게 욱싹거렸지만 부러지지는 않았다.

"창피한 꼴을 당했군." 그가 소리 내서 말했다. "스톤 대 인공 중력. 0 대 1."

스톤의 목소리는 내면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듯 아득하게 들렸다. 그는 부르르 떨며 잠기운과, 기억만큼이나 생생하게 느껴지던 뒤송송한 꿈들을 떨쳐 버렸다.

야생 저그가 득시글거리는 도시의 꿈. 그 수가 어찌나 많았는지, 인류의 수호자가 아슬아슬하게 그들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와 노바는 죽었을 것이다.

구했다고 해야 할까? 사로잡았다고 해야 할까?

노바가 탐색관에게 받은 저그 퇴치 장비를 설치한다.

"자치령 군에서 야생 저그는 이제 위협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 뭐가 변한 거지?" 노바가 말한다. 노바는 물러서서 무해해 보이는 장비를 내려다본다. 노란 핵이 일정한 간격으로 맥동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최면에 걸릴 듯하다.

"뭔가 크게 변했나 봅니다. 이런 보안 장비는 보통 돈과 시간으로 얻어도 못 낼 테니까요." 스톤이 말한다.

정부들은 군사 방어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유령 프로그램은 아마도 장기전에 투자하려는 정부들의 의지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예일 터였다. 스톤처럼 사이오닉 능력을 지닌 사람들을 양성하고 훈련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제하기 위한 기술과 유령의 능력을 강화하고 신체를 보호하는 값비싼 장비에도 돈을 써야 했다. 스톤은 문득 발치에 있는 기계에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이 장치가 맥스웰 말처럼 작동한다면, 우리 같은 현장 요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왜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은 거지?" 노바가 묻는다.

"그냥 깜빡했거나...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겠죠. 어느 쪽이든 마음에 안 드는군요."

"정보를 더 얻어야겠어. 이 모든 게 좀 수상해." 노바가 말한다.

이것이 그와 노바의 수많은 차이점 중 하나였다. 스톤은 명령에 복종하지만, 노바는 끊임없이 의문을 품었다. 그도 죄 없는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 약간의 창의력을 발휘하긴 했지만, 결코 명령을 거역하지는 않았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하면, 한쪽이 먼저 죽을 확률은 반반이었다.

뉴 안다사르. 스톤은 문득 생각했다. 저그 침공으로 몰락한 도시지만, 스톤은 그곳에 있었던 기억이 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하지만 이제는 명백했다. 그저 그곳에 있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와 노바가 저그 공격을 유발했다는 것이.

야생 저그를 무력화할 만큼 진보된 보안 장비... 그렇게 대단한 것이 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스톤은, 인류의 수호자가 자치령 몰래 자신을 이용해 사이오닉 방출기를 심고 저그를 안티가 프라임으로 유인했다고는 절대 상상하지 못했으리라. 그것도 데이비스 장군의 명령하에.

스톤은 눈을 꼭 감았다. 아니다. 자치령이 그의 머리를 뒤집어 놓은 것이다.

자치령은 수호자가 적이라는 생각을 주입하려 했다. 라이글은 아니라고 했지만, 잠을 자는 동안 재프로그래밍한 것이 틀림없다.

스톤은 침대에서 나와 균형 감각과 근력을 시험해 보았다. 몸은 멀쩡했다.

흔들리는 것은 정신이었다. 그는 바로 문으로 향했다. 당연하게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스톤은 불을 켜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승객 숙소는 검소했다. 표준 규격의 싱글 침대, 화면과 금속 의자가 있는 작은 책상이 가구의 전부였다. 개성도 없고, 쓸모 있는 것도 없었다.

스톤은 의자에 앉아 화면을 켜다. 화면은 읽기 전용 모드여서, 탑승 중인 함선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인류의 수호자에게 구조 요청을 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하지만 뉴스에서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는 있었다.

알고 보니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스톤이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헤드라인에 도배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캐롤라이나 데이비스 장군 구속... 인류의 수호자 수장으로 밝혀져'

'인류의 수호자, 저그 공격의 원흉으로 지탄받다'

'탈다림의 바도나 공격... 데이비스는 탈출'

'데이비스 사망'

스톤은 충격에 빠져 마지막 헤드라인을 멍하니 보았다. 너무 늦은 것이었다.

그는 기사를 훑어보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다. 탈다림 죽음의 함대가 바도나를 공격하는 동안, 데이비스는 *매두사*를 탈취하여 세로 조선소에 있는 인류의 수호자 기지로 도주했다고 한다. 장군의 군대와 자치령 고르곤 사이에 교전이 있었고, 데이비스 장군은 그 전투 와중에 살해당한 듯했다. 기밀인 정보도 있겠지만, 스톤은 은폐의 냄새를 맡았다.

노바다. 그가 생각했다. 그는 다시 뷰포트를 통해 스쳐 가는 별들을 보았다.

어디로 가는지 알 방법은 없었지만, 배후에 세로가 있다는 데 한 달 봉급을 걸 수도 있었다. 그날 아침 기사였다. 라이글은 임무 하나를 언급했고.

장군과 함께 싸웠어야 했다. 장군을 잘 지켰어야 했다.

스톤은 혐오감을 느끼며 화면을 밀어 치웠다. 이 중에 믿을 만한 정보가 얼마나 있는 걸까? 자치령 치하에서는 뉴스가 기억보다 조작하기 쉬웠다.

스톤은 벌떡 일어나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여기서 나가서 함선을 탈취해야 한다. 그는 문을 보며 부수고 나갈 수 있을까 가늠해 보았다.

포로로 잡힌 거라면 방을 감시하는 놈이 있겠지. 그렇다면 망할 문을

나가더라도 놈을 제압하느라 고생할 터였다. 그래서 스톤은 다른 전술을 택했다.

노크를 한 것이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면서 민소매 티와 카고 바지를 입은 백인 남자가 나타났다.

요원 X20991N, 시어도어 피어스였다. 피어스는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경계를 풀지

않았다. 피어스의 눈동자는 빠르게 움직이며 스톤을 살폈다. 스톤도 마찬가지로였다.

스톤은 무슨 일에도 대비가 되어 있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다.

"피어스." 스톤이 말했다.

"어이, 스톤. 다시 일어나서 걷는 걸 보니 안심이군요. 좀 어떻습니까?"

"최고는 아니지요. 그래도 다시 나로 돌아온 기분이 들기 시작하는군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말이야. 스톤은 소리 없이 덧붙였다. 그는 사이오닉 능력을

총동원해 피어스의 텔레파시를 차단했다. 다행히 피어스는 스톤보다 사이오닉

능력이 약했기에, 스톤이 방심하지만 않는다면 피어스는 그의 생각이나 계획을 알

수 없을 터였다.

피어스는 몸 상태가 최고였지만 체급이 높고 나이가 어린 스톤이 유리했다.

일진이 좋은 날이라면 스톤이 훈련 전투 때에 그랬듯이 우월한 지구력으로

피어스를 제압할 수 있었겠지만, 피어스는 허리춤에 보조 무기를 차고 있었다.

일진이 나쁜 날이었다.

아직 노바와의 전투에서 채 회복하지 못해 약한 상태인 스톤은 싸울 만한 상태가 아니었고, 특히 차폐복이 없다면 더욱 위험했다. 머리를 써서 피어스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스톤이 말했다. "거기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피어스가 들어와서 문을 닫더니, 문에 기대 섰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이야기죠. 인류의 수호자가 우릴 이용했습니다. 데이비스 장군이 자치령을, 그러니까 당신과 노바를 속여서 저그를 안티가 프라임으로 유인했습니다. 장군이 지금껏 인류의 수호자를 이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편에 배신자가 있었던 거죠. 노바가 그걸 알아내 발레리안이 쫓기 시작하자, 데이비스는 우리를 재프로그래밍했습니다. 당신과 나, 델타를 세뇌해서 *우리가* 충성스러운 수호자라 생각하게 한 다음 자신을 보호하게 만들었죠."

스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당신의 기억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재프로그래밍으로 심은 기억입니까?"

피어스는 손으로 짧은 머리를 넘기고 한숨을 쉬었다. "둘 다 아닙니다. 노바와 라이글이 절 함선에 태우면서 설명해 준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냥... 믿었고요?"

"네. 제가 아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뒤가 맞는 이야기는 이것뿐이거든요. 자치령이 우릴 구했습니다, 스톤. 실제로 유령들의 처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임무 중에 행방불명되니까 발레리안 황제가 유령 프로그램의 약관을 변경했습니다. 이제 동의 없이 우리의 기억을 소거하거나 교체할 수 없게 됐죠. 우린 그만큼 자유를 얻은 겁니다."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스톤은 자신이 알던 유령 프로그램의 근간을 완전히 뒤엎는 말에 간담이 서늘했다. "무슨 자유 말입니까?"

"선택의 자유죠."

스톤은 팔짱을 껐다.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군요."

"우리가 이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진심이라는 증거입니다."

드디어 누구를 위해 일할지, 무슨 일을 할지 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지도 모르겠군요." 스톤은 피어스가 그의 생각에 침투하는 것을

감지했다. 그를 바로 차단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기보다는, 스톤은 생각의 구획을

나누고 숨겨서 피어스가 그의 말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집중했다.

"델타는 어떻게 됐습니까? 델타도 이 이야기를 모두 믿습니까?" 스톤이 물었다.

"델타라..." 피어스가 시선을 떨구었다. "아뇨. 델타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죠. 우리가 이 함선에 탑승했을 때 델타는 기억을 소거당했습니다."

스톤은 숨을 들이켰다. "선택의 자유는 거기까지였군요."

"그게 델타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을 감당 못 하는 유령,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했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령은 늘 있으니까요.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고, 기억을 일부 포기하는 건 축복일 수도 있죠. 안

그런가요?"

스톤이 끄 소리를 냈었다.

"정신 소거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총이나 마찬가지로." 피어스가 말을 이었다.

"유령도 그렇지요." 스톤이 말했다.

"선하게 쓰느냐 악하게 쓰느냐는 사용하는 사람에게 달린 겁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라는 건 아닙니다. 당신은 저보다 고집이 세니까요. 그래도 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말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스톤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다. "알았어요.

그럼 제가 납득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린 자치령의 함선을 타고 있단 겁니까?"

"그리핀이라는 함선이고, 자치령 소속도 아닙니다."

"네?"

"우린 지금 엄밀히 말해... 무소속이죠."

"그리핀이 자치령 함대 소속이 아니고, 수호자 함선도 아니라면 누구의 것입니까?"

"노바 테라요."

스톤의 눈썹이 핵 치켜 올라갔다. 피어스는 그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그리고 그게 재미있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내가 대체 뭘 놓친 거지? 분명 사연이 있겠지. 그는 이 생각을 피어스가 읽도록 두었다. 지금은 혼란을 느끼는 것이 당연했고, 굳이 가장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노바는 발레리안에게 복종하는 게 아닙니까?"

"이야기가 복잡합니다." 피어스가 말했다. "짐작도 못할걸요."

"복잡하군요.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톤은 평생 동안 남에게 복종하며 살아왔다. 정권이 여러 차례 교체되는 동안에도 유령 프로그램은 건재했고, 당시에 누가 권력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 조금씩 변했을 뿐이었다.

피어스는 두 손을 벌렸다. "우리한테 새 출발을 할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심지어 발레리안 황제는 원한다면 프로그램에서 나가도 된다고 했죠."

유령 프로그램에서 *나간다고*? 그때까지는 불가능했던 일이었다. 누구도 입에 담은 적이 없는 발상이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는 나갈 것인가? 스톤은 스스로 기억하는 한 언제나 유령이었다. 그는 이 프로그램에 의해 육성되었다. 그가 끝 프로그램이었다. 거기서 나온다면 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스톤은 얼굴을 찌푸렸다. 피어스는 실수한 것이었다. 유령 프로그램이 사실상 끝났다고 주장하다니, 선을 넘었다. 어쩌면 그들이 스톤을 방심하게 하려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스톤은 아직도 그들이 무엇을 노리는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할 수가 없었다.

그가 어느 편인지 알아보려 하는 것인가? 데이비스 장군을 제거했으니 뒷정리를 하는 것일 가능성도 있었다. 스톤의 사이오닉 능력은 강력해서 정신 소거와 재사회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있었다. 전에도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그의 정신이 지금 서로 모순되는 기억들을 조정하려 노력하는 이유기도 했다.

진실은 언제나 어딘가에 있다. 속이 보일 만큼 한 겹 한 겹 벗기고 들어가면 된다. 최소한 진실의 파편들은 있다. 유령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이전 스톤의 짧았던 삶에 대한 기억이라도. 지금까지 조금도 기억해 내지 못한 삶과 가족에 대한 기억.

늘 그랬다. 스톤의 기억은 늘 구멍투성이였고, 시간과 행동이 군데군데 빠져 있었다. 그리고 그나마 있는 부분도...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기에 라이글과 피어스가 지금 그에게 진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지도 몰랐다. 노바는 데이비스의 저택에서 그를 죽이려 하지 않았다. 즉 그들이 스톤을 재프로그래밍하거나 기억을 소거하거나 죽이는 데 실패했다면, 분명 그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터였다.

그에게 그들이 원하는 정보가 있어서, 정보를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 드디어 앞뒤가 맞는다.

스톤이 이 함선에서 깨어난 후로 보고 들은 모든 것이 미심쩍었다. 그렇다면 데이비스 장군도 아직 살아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어차피 여기 앉아서 옛 '친구'와 수다나 떨면서 진실을 알아낼 수는 없는 법이었다.

그때 결눈에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피어스가 총에 손을 뺐고 있었다. 스톤은 자신에게 욕을 했다. 이번에는 그가 실수했다. 상대 유령에게 피어오르는 의심과 불신을 들킬 만큼 생각의 보호막을 내린 것이었다.

"스톤, 괜찮습니까?" 피어스의 목소리는 단단히 날이 서 있었다.

시작이다. 스톤이 생각했다.

"그냥 조금..." 그는 고개를 저었다. "어지러워요? 라이글을 불러야겠군요."

스톤은 피어스에게 등을 돌리고 앞으로 휘청이는 척을 했고, 피어스가 단련된 반사 신경으로 앞으로 몸을 던져 그를 잡았다. 그는 스톤을 팔 아래로 붙잡았다.

스톤은 피어스가 그런 의도를 그의 정신에서 읽을 거라 예상하고, 피어스의 총에 손을 뺐는 척했다. 총을 쓰려는 것이 아니라, 피어스가 먼저 뽑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피어스가 몸을 비틀어 빼며 권총으로 손을 뺐는 순간, 스톤은 그의 오른쪽 아래팔을 붙잡고 돌면서 피어스를 들어 올려 어깨 위로 넘겼다.

피어스는 등으로 바닥에 쿵 떨어졌다. 그는 숨을 헐떡거렸지만, 스톤이 바닥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가구, 책상 의자를 들었을 때는 이미 회복하는 중이었다. 스톤이 피어스의 머리를 향해 의자를 휘둘렀다.

피어스는 몸을 굴러 피했고, 의자는 빗나가며 부서졌다. 그 충격으로 스톤의 두 팔이 떨어 왔다. 그는 이를 악물고 의자의 남은 부분, 등판과 뒷다리들을 붙잡았다. 스톤은 임시변통의 금속 봉을 높이 들었다. 이거면 되겠지.

피어스가 부드러운 동작으로 다시 일어서서 총을 뽑고 다가왔다.

"이러지 마십시오." 피어스가 말했다.

"이미 이려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전 당신 적이 아닙니다. 우린 당신을 도와주려는 거예요."

피어스는 동시에 그 말을 스톤의 정신으로도 보냈다. 그 말을 믿게 만들겠다는 뜻이.

"바로 그 부분을 못 믿겠어." 스톤은 피어스에게 몸을 날렸다.

피어스가 권총을 발사했지만, 스톤이 오른쪽으로 빙글 돌아 총알은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을 뿐이었다. 그는 회전을 마치며 피어스에게 다가갔다. 스톤은 봉

하나로 피어스의 옆구리를 후려치면서, 나머지 하나로는 그의 손목을 강하게 내려쳤다. 피어스는 욱설을 뱉으며 총을 떨어뜨렸다.

스톤은 봉으로 피어스의 머리 양쪽을 후려치려 했지만, 상대가 아래로 피하자 봉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맞부딪혔다. 스톤은 한쪽 다리를 뺀어 총을 피어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걷어찼다. 총은 책상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피어스는 스톤의 한쪽 발을 붙잡고 핵 당겨, 그를 넘어뜨렸다. 그 바람에 그는 금속 봉을 모두 떨어뜨렸다.

"그만!" 피어스가 스톤의 정신으로 생각을 쏘아 보냈다. 그의 보호막을 뚫을 만큼 큰 소리였다. 또한 순간적으로 스톤의 시야가 흐릿해지면서 방향 감각이 없어질 만큼 큰 소리였다. 스톤의 시야가 다시 맑아졌을 때는 피어스가 봉을 하나 들고 있었다. 그는 양손으로 봉을 가로로 들고, 스톤의 목덜미에 대고 쇠골이 으스러져라 눌렀다. 그리고 그의 무릎이 스톤의 가슴을 고통스럽게 파고들었다.

"나한테 뭘 원하는 거지?" 스톤이 신음하듯 말했다.

피어스가 힘을 조금 뺐다. "그만 싸우시죠. 우리 도움을 받아들여요."

스톤은 웃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거친 기침 소리가 되어 나올 뿐이었다. "왜 다들 갑자기 날 돕지 못해 안달인 건데? 바라는 것이 *있지 않고서야* 그럴 리가 없지."

그의 신뢰를 얻어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빼내려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게나 중요한 것이 대체 무엇이지? 그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그 자신에게도 비밀일 터였다. 올바른 질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답을 찾기도 어려웠다.

"이해합니다. 우린 모두 이용당하는 데 익숙하니까요. 이번엔 그런 게 아닙니다, 스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되는 대로 바닥을 더듬던 스톤의 오른손에 아까 떨어뜨린 봉 하나가 잡혔다. 그는 봉을 휘둘러 피어스의 관자놀이를 쳤다. 그리고 피어스가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에 몸을 빼냈다. 스톤은 피어스를 떨쳐 내고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숨을 몰아쉬었다.

"어디로 가려고요?" 피어스가 고함을 쳤다. 그는 옆머리를 만지고 손끝에 묻어나는 피를 보았다. 그러고는 셔츠에 손을 문질러 닦았다. "어차피 이 함선에서 내리지는 못합니다."

누가 이 함선에서 내리고 싶대? 스톤은 피어스가 듣거나 말거나 개의치 않고 생각했다. 데이비스가 살아서 함선에 타고 있다면, 장군을 구출하고 함선을 탈취할 생각이었다. 그게 아니라면 그리핀을 파괴하여, 현재에도 위협인 노바를 제거하고 장군의 원수를 갚는 것만으로 족할 것이었다. 그러면 자치령은 큰 타격을 입고 인류의 수호자의 사기가 오를 테니까.

그러나 그 순간 스톤은 주저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도 알지 못했다. 그 뉴스가 사실이라면... 데이비스가 진짜 사망했고 인류의 수호자가 패배하여 도주했다면, 그렇다면 스톤은 소속이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그가 자치령의 요원이었으며 현재 독립 함선에 타고 있다는 피어스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래도 소속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 거지?

그때 피어스가 스톤에게 다시 봉을 휘둘렀고, 스톤은 반사적으로 들고 있던 봉으로 공격을 막았다. 그는 피어스 주위를 춤추듯 움직이며 사관학교에서 배운 검도 동작을 썼다.

생존. 지금은 오직 그것을 위해 싸우면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실을 알아낸다면 그건 덤이다.

스톤은 돌려차기로 피어스를 넘어뜨렸지만, 상대는 봉으로 그의 무릎과 척추를 빠르게 후려쳐 스톤을 쓰러뜨렸다. 그는 얼른 몸을 일으키고 얼굴을 지푸리며 고통을 억눌렀고, 둘은 다시 맞붙었다. 그들은 연이어 타격을 주고받았다. 치고, 막고, 찌르며. 둘은 막상막하였다.

사이오닉 등급으로 보면 스톤이 피어스보다 강한 전사였지만, 그는 아직 부상에서 회복하며 모순되는 기억과 씨름하는 중이었다.

결국 대치가 시작되었다. 둘은 서로를 마주하고 천천히 방 가장자리를 돌며 기회를 노렸다. 기본적인 객실에는 몸을 숨길 곳도 없고,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곳도 없었다. 남자 둘, 훈련받은 사이오닉 살인자 둘이 있을 뿐이었다.

남자 둘과... 총 하나.

피어스가 어깨를 늘어뜨렸다. "제가 일을 그르쳤군요. 노바에게 당신을 설득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당신과 이야기해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는 허리춤에 걸린 통신기에 손을 뻗었다.

"잠깐—" 스톤이 말했다.

"라이글." 피어스가 통신기에 대고 말했다. "실패입니다. 아무래도 노바가—"

스톤은 책상 밑으로 몸을 날려 권총을 잡고 피어스에게 겨누었다. 방아쇠에 닿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둘의 시선이 잠시 얽혔다.

"날 쏘지 않을 겁니다." 피어스가 생각했다.

"내 머릿속에서 나가!" 스톤은 총알이 피어스의 두개골을 꿰뚫는 이미지를 떠올리며 그의 머리 바로 위를 쏘았다. 피어스가 몸을 숙여 총알을 피하는 틈을 타서 스톤은 문으로 뛰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위험한 포로와 이야기할 때 할 법한 일은 아니군,* 스톤은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차분하게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오른쪽에서 무거운 부츠 소리가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스톤은 손으로 개폐판을 후려쳤다. 문이 닫히면서 달려오는 피어스의 모습이 언뜻 보였다. 개폐판을 쏘아 잠금장치를 고장낸 뒤, 스톤은 순찰 중인 경비병의 반대쪽으로 소리 없이 움직였다. 피어스가 방 안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뒤를 따라왔다.

#

폐쇄된 방에서 무기도 차폐복도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 하지만 사각지대와 어두컴컴한 복도, 움푹 꺼진 문간, 개폐판과 회로가 곳곳에 있는 함선을

누비는 스톤은 물을 만난 물고기와 같았다. 유령은 은폐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도
무한정 감지되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승선원 전원에게 스톤이 무장 상태로 돌아다닌다는 경보가 전해졌는데도,
스톤이 그들 옆을 몰래 지나가거나 필요에 따라 무력화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 승선 중인 인력 대부분이 전투를 치른 적이 없거나 최소한 전투 훈련을
제대로 써먹어야 했던 적도 없다는 것이 금세 분명해졌다. 스톤은 이미 추가 총기와
선원 유니폼, 통신 장치를 손에 넣은 상태였다. 장치를 사용하면 선내 교신을
도청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몰래 움직이기 힘들고 위치가 들킬 위험도 있었다.

스톤은 긴장한 채로 복도를 서둘러 가는 젊은 기술자의 뒤를 몰래 밟았다. 그와
발소리를 맞추었지만, 큰 보폭 덕분에 거리는 금세 좁아졌다. 그가 그 불쌍한
선원을 덮치는가 싶은 순간, 기술자가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기술자는 스톤을
보고 입을 열었지만... 스톤이 그의 왼쪽 어깨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입을 막은 채
벽으로 밀어붙였다. 기술자는 입이 막힌 채로 숨을 뱉고는 움찔거렸다.

"미안하군. 아팠나?" 스톤이 말했다. "묻는 대로 답해라. 안 그러면 더 아플
테니."

남자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스톤은 그를 끌고 방으로 들어갔다. 텅 빈 수경재배실이었다. 그는 남자를 놓아주고 팔짱을 껴다. 굳이 권총을 꺼낼 필요도 없었다.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기술자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 말해 보라. 이건 무슨 함선이지?" 스톤이 물었다.

"그리핀입니다." 기술자가 목덜미를 문지르며 기침했다.

"이곳의 사령관은?"

"노바 테라요."

스톤이 한쪽 눈썹을 치켰다. 피어스의 이야기가 확인되고 있었다. 기술자는 텔레파시 능력자가 아니었기에, 그의 정신은 펴 놓은 책이나 마찬가지로였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런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 발레리안이 노바에게 자기 함선을 내주고, 자치령 영토 밖에서 운항하는 것을 좌시하겠는가? 그녀는 자치령에 충실히 복무했고, 사라 케리건과 함께 유령 프로그램이 배출한 최고의 요원이었다.

발레리안이 중요 자산을 그리 쉽게 놓아줄 리가 없었다. 그가 노바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주면서 빛을 지우는 것이 최선이라 계산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노바가

인정하느냐와는 별개로, 그녀는 아직 발레리안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럼 노바는 지금 어디 있지?" 스톤이 물었다.

"모릅니다. 함교에 있을지도요. 아니면 숙소?"

"데이비스 장군은?"

남자는 믿기 힘들다는 눈빛으로 스톤을 바라보았다.

"*캐롤라이나* 데이비스 말이다." 스톤이 재촉했다. "장군을 어디에 붙잡아 두고 있지?"

"데이비스는 죽었습니다.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이번에도 그의 말에 기만의 흔적은 없었다.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남자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은 믿을 수 있었지만.

스톤은 자신을 돌아보았다. 가볍고 아득한 분노 외에는, 데이비스에 대해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가 장군과 그 대의에 진심으로 충성했다면 달랐을까? 그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절제하는 데 익숙했지만, 그래도 감정을 느끼기는 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러나 그건 외부적인 것이었다. 다른 사이오닉 정신이었다. 생각이 읽히지 않도록 차단했지만, 다른 존재가 정신으로 밀고 들어오려 하는 동안 그게 누구인지 스톤은 알아차렸다. 델타였다.

사이오닉 등급은 스톤과 같은 7이었지만, 델타가 조금 더 강했다. 그녀는 염력을 지닌 극소수의 유령 중 하나였다. 계속 밀고 들어오면 결국은 스톤의 보호막을 뚫고 말 것이었다. 하지만 델타는 그러지 않고 물러났다.

그때 그는 자기 실수를 알아차렸다.

기술자는 사이오닉 등급이 낮기 때문에 텔레파시 능력자로부터 생각을 차단할 수가 없었다. 지금 그는 스톤을 생각하고 있을 테니, 아마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위치를 방송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제길." 스톤은 기술자를 쏘아 정신 링크를 끊어 버리고 싶은 충동을 누르고, 그를 기절시키는 것으로 만족했다. 남자에게 일말의 동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다.

흠친 통신 장치를 켜 스톤에게 라이글의 목소리가 들렸다. "—파악됐습니다. 3분 후에 3번 갑판 생명 유지 시설의 비상 차단과 감압이 실시되니 대비하십시오.

"

스톤은 기술자를 떨어뜨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곳이 3번 갑판이라는 거군. 그들이 스톤을 우주로 방출하려 하고 있었다. 우주복을 구하거나 다른 갑판으로 가야 했다. 기술자가 길을 알려 주었을 텐데. 기절시키지만 않았어도 말이다. 여기 두고 가면 산소가 떨어지고 말 것이었다.

스톤은 한숨을 쉬며 의식을 잃은 기술자를 내려다보고, 몸을 굽혀 어깨에 짊어졌다.

이제 복도의 조명은 붉은색으로 번쩍이고 있었고, 컴퓨터의 사근사근한 목소리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감압까지 2분 남았습니다."*

기술자를 어깨에 짊어진 스톤은 아까보다 더 주목을 끄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었다. 그는 그림자에 숨어 움직이려고 애썼지만, 다행히 선원들은 대피하느라 너무 바빠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스톤은 사람들이 가는 방향과 반대쪽으로 뛰다가 갑판에 있는 해치를 발견했다. 해치는 누가 이미 확보했는지, 사다리가 아래로 내려가 있었다.

"감압까지 1분 남았습니다."

노바를 만나 따지려면 위로 올라가서 주 갑판에 있는 함교로 가야 하겠지만
선원들이 모두 그곳으로 가고 있었다. 그는 가장 유력한 탈출 수단인 왕복선
발사대가 아래에 있을 거라 판단했다.

"다음은 기약하지, 노바." 스톤이 중얼거렸다.

그는 기술자를 털썩 내려놓고 손잡이를 돌려 해치를 열기 시작했다. 해치가
열리자, 그는 의식이 없는 기술자를 다시 들고 혹시 모를 전투에 대비하며 좁다란
계단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4 번 갑판의 통로는 텅 비어 있었고, 위층과 똑같이 붉은
조명이 번쩍이고 있었다.

"30 초... 29... 28..."

스톤은 기술자를 이번에는 살살 갑판에 내려놓고 다시 급히 사다리를
올라갔다. 그는 해치를 닫고 잠금장치를 조였다.

통신 장치에서 라이글의 목소리가 뿜어져 나왔다. "2 번 갑판, 4 번 갑판에서
생명 유지 시설 차단과 감압을 준비하십시오."

"제기랄!" 스톤이 고함을 쳤다. 그들은 장난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함선의
최하층에 그를 가둔 것이었다. 이제 3 개 층을 올라가서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인간 짐짝을 짊어진 상태에서는 더더욱. 그러면 그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되겠지만, 어쩌면 이 층에 밀폐가 가능한 방이 있을지도 몰랐다.

"감압까지 3 분 남았습니다."

스톤은 사다리 옆에 있던 표지판을 보고 솟아나는 희망을 느꼈다. 아직은 끝이 아니었다. 자신을 하층으로 보낸 것을 후회할 거라는 확신마저 들었다.

왕복선 발사대는 갑판의 꼬리 방향에 있었지만, 그의 전방에 무기고가 하나 있었던 것이다.

스톤은 웬지 아까보다 무거워진 듯한 기술자를 다시 짊어지고, 앞을 가리키는 화살표를 따라 무기고로 갔다. 남자를 무겁게 짊어지고 온 보람이 있었다. 그의 손을 대자 문이 열린 것이었다.

스톤은 그간 수십 척의 함선에 있는 수십 곳의 무기고에 가 보았고, 기억나지 않는 것도 스무 곳은 될 터였다. 그는 스킨 슈트를 보통 어디 보관하는지 잘 알았다. 그리고 자신의 장비가 말끔히 수리되어 그곳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의 두뇌가 그 사실을 따지기 시작했다. *여차피 나를 자치령으로 반환할 거라면, 왜 내 장비를 다 고쳐 놓은 거지?*

"감압까지 2 분 남았습니다."

컴퓨터의 목소리에 그는 펄쩍 정신을 차렸다. 지금은 그런 의문을 품을 시간이 없었다.

그는 재빨리 슈트를 착용하고 헬멧을 썼다. 그리고 씨익 웃었다. *이제야* 자신을 찾은 기분이었다. 이 함선에서 정신을 차린 후로 줄곧 불안했는데, 그것이 기억이 뒤죽박죽이 되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만은 아니었음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것을 스킨 슈트라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또 하나의 피부처럼 몸에 딱 붙을 뿐만 아니라, 마치 자기 몸의 일부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슈트는 그의 사이오닉 에너지를 집중시켜 신체 능력을 증강시켜 주기도 했지만, 스킨 슈트야말로 유령에게는 집이 주는 안락감에 가장 가까운 것이기도 했다.

사이오닉 능력을 지닌 테란은 공포와 추격, 차별의 대상이었다. 비록 결함도 많고 윤리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유령 프로그램은 그들에게 머무를 곳을, 목적을 주었다.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과 능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또한 해롭고 제어하기 힘든 능력을 귀한 재능으로 바꾸어, 그에게 전술적인 우위를 부여해 주었다. 유령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스톤은 평생 숨어 살았을 것이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 내에서만큼은 숨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었다.

그리고 그저 살아남는 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올바른 명령을 받기만 하면
남들을 위해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 그의 인생에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능력이 온전히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며, 스톤은 사이오닉 에너지를 순환시켜
힘을 강화하고 방비를 증강했다. 무엇이든 상대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분명
감압도 견딜 수 있을 테고, 함선의 산소가 없어도 당분간은 숨을 쉴 수 있을
것이였다.

"감압까지 60 초 남았습니다."

스톤은 일반 우주복을 챙기고 기술자를 그 안에 옥여넣었다. 그는 벌써 조금
전보다 빠르고 자신 있게 움직이고 있었다. 남자의 머리에 헬멧을 씌우고 우주복을
밀폐하자마자 카운트다운이 0에 도달했다.

"3... 2... 1." 스톤은 공기가 순식간에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기를 기다렸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스톤은 기술자의 장갑을 벗기고 남자의 손바닥을 무기고 콘솔에 대고 눌러,
컴퓨터에 로그인했다. 갑판이 모두 녹색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였다.

인력을 더 대피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소했거나, 아니면 모두 허세였던 것이다.

하지만 왜?

그들은 스톤이 함선을 돌아다니며 자신을 노출시키기를 바랐다. 그런데 그는 결국 이곳까지 왔고 차폐복도 확보했다.

그는 오래된 농담을 떠올렸다. 차폐복이 없는 유령을 뭐라고 부를까?

죽은 유령.

무기와 방어구를 완전히 갖춘 유령은 상대하기가 훨씬 까다로웠다. 따라서 유령을 생포하려 한다면 차폐복에 최대한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옳았다.

스톤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우주복을 입고 잠든 기술자를 무기고 안에 두고, 은폐 장치를 가동했다. 그는 갑판 반대쪽에 있는 왕복선 발사대로 향할 생각으로, 밖의 통로로 가만히 빠져나왔다. 바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의 스캐너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고 정신 탐색에는—

또 하나의 사이오닉 정신이 감지되었지만, 그의 정신은 위치를 파악하거나 정체를 식별하지 못하고 주위를 걸돌 뿐이었다. 그때 유령 하나가 그의 오른쪽에서 은폐를 풀었다.

요원 X10128B. 델타 엠블록.

"안녕, 델타." 스톤은 은폐를 풀고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녀는 무기를 들지 않은 채 두 손을 들어 해를 끼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보였다. 그녀 자신이 차폐복을 입은 무기라는 점을 생각하면 역설적인 일이었다.

"스톤. 바쁘게 움직이던데요. 몸은 어떤가요?" 그의 보호막으로 델타의 끊임없는 염탐을 견뎌 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그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 좀 낫군." 그는 한쪽 팔을 풀었다. "공공이가 뭐지? 왜 나를 차폐복이 있는 곳으로 유도한 거야?"

"이야기를 나누려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 스톤이 말했다. "그리고 당신들이 하는 이야기엔 관심 없어. 피어스는 당신이 기억 소거를 택했다고 하더군. 지금은 당신의 판단력을 믿을 수가 없다."

"당신 판단력도 못 믿잖아요. 저도 당신 처지였습니다, 스톤. 우린 똑같은 일을 겪었고, 전 살아가기 위해 이쪽을 택한 겁니다."

"왜 여기 있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오라고 했어."

스톤이 노바의 목소리에 몸을 빙글 돌렸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근처에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녀는 그의 머릿속에 직접 말을 하고 있었다.

"노바! 어디 있지?"

"우리가 원하는 건 당신을 돕는 거야, 스톤. 피어스와 델타처럼, 그리고 나처럼, 당신에게도 선택권이 있어. 데이비스가 우리 모두의 정신을 소거했어. 이 기회를 날려 버리지 마. 물론 겁이 나는 건 알지만—"

"겁 따위 *안* 나." 스톤이 말했다.

"난 *났*거든." 노바가 대답했다. 그녀는 그의 바로 앞에서 은폐를 풀었다.

스톤은 노바와 델타 사이에 끼인 꼴이 되었다.

노바가 어깨를 으쓱했다. "솔직히 말하면 난 아직도 매일같이 겁이 나. 그래도 계속 나아가지. 계획을 세웠으니까, 차근차근 해 나아가는 거지."

무기고 문이 열리면서 자신의 차폐복을 입은 피어스가 걸어 나왔다.

"깜찍한 수법을 쓰던데요, 스톤." 피어스가 말했다. "언젠가 꼭 돌려줄게요."

피어스는 무기고 안으로 순간이동해 온 모양이었다. 이제 스톤은 머릿수로 완전히 밀리는 데다 거의 포위당한 상태였다.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노바가 말했다. "당신은 빠져나갈 방법이 하나뿐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 당신에게는 훨씬 많은 가능성이 있어."

"당신에게 생각을 읽히면 참 싫다니까." 스톤이 말했다.

"알아." 노바가 미소를 지었다. "난 당신도 잘 알지, 스톤. 사실 지금은 당신이 스스로를 아는 것보다, 내가 당신을 더 잘 알지도 몰라."

"왜 이런 일을 꾸민 거지?" 스톤은 돌아서서 델타와 피어스를 보고, 다시 노바를 보았다.

"당신에겐 기억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병동이나 방에 갇힌 채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린 알았거든. 직접 알아내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믿지 않을 테니까." 노바는 한쪽 손을 허리에 댔다. "언제나처럼 일을 힘든 방법으로 하는 쪽을 좋아하지. 그건 존중해. 하지만 그런 성향은 자기파괴적이기도 해. 내 말 믿어."

"믿으라고..." 스톤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이게 시험이었다는 건가?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한 거야?"

"당신이 어떻게 나올지는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도 당신이 실제로 해야만 했지. 스톤, 우리 유령들은 대체로 임무에 개인 의견을 제시할 수 없지. 하지만

당신은 가능하면 언제나 사람들을 지킬 방법을 찾아냈어. 심지어 오늘도 자기가 포로라고 거의 확신하면서도 피어스를 죽이지 않았고—"

"실은 거의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피어스가 콧소리를 냈다.

"그래." 노바가 말했다. "그리고 오슬로가 짐이 되는데도 그를 지켜 주었지."

"오슬로는 또 누군데?"

기술자가 무기고 문으로 왔다. 한 손으로 옆머리를 잡았지만, 겸연쩍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접니다. 제가 오슬로예요. 다치긴 했지만 죽진 않았어요. 그건 감사해야겠네요."

"고맙긴..." 스톤이 자신 없게 말했다.

"이제 진찰 받으러 가도 될까요?" 오슬로가 말했다. "분명 뇌진탕이 온 것 같은데."

스톤이 움찔했다.

"피어스, 오슬로를 병동으로 데려가 줘." 노바가 말했다.

피어스는 고개를 끄덕이고 비틀거리는 기술자를 부축해 복도를 걸어갔다.

"그렇다면 차폐복을 내준 건 왜지?" 스톤이 말했다.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 싸워야 한다면 공정하게 싸우려고." 노바가 말했다. "당신에겐 그럴 자격이 있지."

"2 대 1 이 공정하다고?" 스톤이 물었다.

델타가 씩 웃었다. "전 노바가 당신을 혼쭐 내는 걸 구경하러 왔는데요."

"힘나는 말 고맙군." 스톤이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맞았다.

"예전에 당신이 멀쩡했을 때도 내가 이긴 적이 있긴 하지." 노바가 말했다.

"그때 당신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날 죽이지 않았어."

"당신의 의지로 했던 일이 아니니까."

"인류의 수호자와 자치령에 대해 아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델타가 말했다.

"당신이 기억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무관하게, 누구 편에 서고 싶습니까? 유령들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여론을 좌지우지하려고 죄 없는 사람들의 목숨을 위험하게 하는 쪽이요? 아니면 테란을 저그로부터 보호하려 노력하면서, 유령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자기 운명을 정할 자유를 주는 쪽이요?"

"내가 자치령이 갑자기 유령들에게 신경을 쓴다고 믿을 만큼 바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스톤이 말했다.

"자치령은 안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는 그래." 노바가 말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저버리지 않을 거야."

"인류의 수호자는 우리 모두를 외계 종족으로부터 구하려 했다. 저그나 탈다림과 싸우는 데 그들보다 공이 큰 세력은 없어." 스톤이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그의 귀에 들어오는 순간 이미 공허했다.

"야생 저그를 이용해서 발레리안을 모함하려 한 자들이야!" 노바가 소리쳤다. "인류의 수호자는 안티가 프라임과 티라도 X 를 파괴하고... 오로지 구원자 행세를 하기 위해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수많은 민간인을 살해했지. 당신과 나는 인류의 수호자의 진짜 속셈을 알아내고 그들을 막으려 했어. 당신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야, 스톤. 언제나 사람들을 도우려 하지."

스톤은 고개를 기울였다. 어느 시점부터, 그는 가장 간단한 답이 옳은 답이라는 진실을 믿는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모두 그를 속여 인류의 수호자를 등지게 만들려는 복잡한 음모가 아니라는 사실, 노바가 진심이라는 사실만 받아들인다면 노바의 말을 믿는 수밖에 없었다. 이미 믿을 것이 못 되는 기억은 무시하고 직감을 따라야 했다. 그가 가진 정보를 바탕으로 지금 보고 듣는 것을 믿어야 했다.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치령의 요원이었으며, 캐롤라이나 데이비스 장군은 당해 마땅한 꼴을 당했다는 사실을.

"운명은 각자가 선택하는 거야." 노바가 말했다. "당신이 했던 말이지. 그건 프로그래밍에서 나온 말이 아니야. 당신에게서 나온 것이지. 아무것도 못 믿겠다면 최소한 자기 자신은 믿어 봐."

진실은 이제 중요하지 않을지도 몰랐다. 그가 여기서 빠져나가 새로운 현실을 만들 수만 있다면.

"알겠다." 스톤이 양손을 들었다. "자, 말해 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날 자치령에 넘길 건가? 아니면 다시 코랄로 데려갈 건가?"

"난 자치령을 위해 일하지 않아. 이제 우리 누구도 자치령 소속이 아니지. 스톤, 당신이 그러고 싶다면 몰라도 난 당신을 자치령으로 데려갈 생각이 없어.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

"지금껏 한 명도 그걸 물어본 사람은 없었는데." 스톤이 말했다. "내가 기억하는 한 말이야."

"글쎄, 이제는 아니야."

#

스톤은 깨어났다. 다시 병동에 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그곳에 있는 이유를 알았다.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사이오닉 능력에 걸려 있던 제약이 사라져 있었다. 자유로워진 것이었다.

"정말 됐군." 스톤이 속삭이듯 말했다.

"수술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라이글이 말했다.

스톤은 고개를 돌려 침대로 다가오는 라이글과 노바를 보았다.

"괜찮아, 스톤?" 노바가 물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군." 그는 노바의 존재를 선명하게 감지했다. 델타와 피어스가 함선의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함선 곳곳에 있는, 각기 다른 사이오닉 등급을 지닌 테란들도 모두 느껴졌다. 차폐복의 센서와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예리하게 주위 환경과 자신을 인식할 수 있었다.

"재프로그래밍이 되어 깨어나거나 자치령의 감방에서 깨어나는 게 아닐까 하는 일말의 의심이 남아 있었지. 그런데 당신 말이 사실이었던군." 스톤이 말했다.

라이글은 엉망으로 얽힌 회로와 전선 뭉치를 들어 올렸다. "기념품으로 보관하실래요?" 그가 물었다.

스톤은 고개를 젓고— 거의 바로 후회했다.

"다행입니다! 제 소장품에 추가해야겠군요. 구형 유령 하드웨어는 흔히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흥미로운 골동품이에요." 라이글은 혼자 미소 지으며 장치를 실험복 주머니에 넣었다. 노바는 꺼림칙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스톤에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정말 괜찮겠어, 스톤?"

"그걸 묻기엔 좀 늦지 않았어? 하지만 정말 유령 프로그램에서 나갈 수 있다면, 그게 내게는 최선이라 생각해." 델타는 자치령이나 인류의 수호자 중에 한쪽을 선택해도 된다고 말했지만, 진정 자유의 몸이라면 어느 쪽도 택하고 싶지 않았다. 새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으려면 고생스럽겠지만, 노바와 *그리핀*의 나머지 승선원들이 그랬듯이 그건 혼자서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다.

"우선 자치령에 보고하는 것만 잊지 마세요." 라이글이 말했다.

노바가 눈을 굴렸다.

"공식적으로 통지하시라는 겁니다." 라이글이 말을 이었다. "제어기를 제거했으니 기억이 점차 돌아올 겁니다."

스톤은 그것이 꽤 두려웠다. 지금까지 그가 죽인 자들의 얼굴과, 때가 되면 되살아날 사실들이 걱정됐다. 그래도 결코 깨어나지 못할 꿈의 연속 속에서 포로가 되어 사는 것보다는, 새 인생을 직접 선택하는 편이 나았다.

그리고 그는 깨어나고 싶었다.

"여긴 언제든지 돌아와도 돼." 노바가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누군가는 우주를 보호하고 평화를 지켜야 하거든."

"지금까지 내가 살던 삶은 오로지 유령의 것이었어. 당분간은 나로 살고 싶군. 하지만... 그 *나*가 진정 누구인지는 알아야겠지. 나 자신을... 알아야겠어."

노바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이제 어쩔 생각이야?"

스톤은 몸을 뒤로 기대고 미소를 지었다.

"내려 주면 유령이 제일 잘하는 일을 하려고. 사라지는 것 말이지."

끝

글: EC Myers

편집: Chloe Fraboni

프로듀서: Brianne Messina

세계관 자문: Madi Buckingham, Sean Copeland

크리에이티브 자문: Jeff Chamberlain, Kevin Dong, George Krstic, Ryan Quinn, Ryan

Schutter

도움 주신 분: Thomas Floeter, Martin Frost, Felice Huang, Chungwoon Jung, Jaclyn Lo,

Alexey Pyatikharka, YuSian Tan